

광주 교육의 실험...야자 때 대학 강의 듣는다

〈야간자율학습〉

■. 광주 A고 1학년 나선태군은 두 달간 전남대 강의실에서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생명 윤리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생물학 수업으로 나군을 비롯, 일반계 고교생 30명이 수강한다.

나군은 정규수업(7교시)~보충수업(8·9교시)을 끝내고 야간 자율학습(오후 7시~9시) 시간에 전남대를 찾아 하루 100분씩 대학 수준의 심화 학습을 배운다.

나군의 수강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 란이나 ‘재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기록된다. 나군은 평소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심화과정 강의가 대입 전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개요

수업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오후 7시~9시) 1일 100시간 8주간
장소	광주지역 대학교
강사	박사 이상
수강료	무료



고교·대학 연계 ‘꿈꾸는 공작소’

야자 완전 선택제 대안 가능성

대입 ‘학종’ 전형 맞춤형 설계

교육청, 이달까지 참여 대학 공모

광주 고등학생들이 5월부터 광주지역 8개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정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추진중인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획일적 방과후 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진로 적합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면서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이다. 이른바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이다.

‘꿈꾸는 공작소’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대학 강의를 통해 심화할 수 있게 하거나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전문가와의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한층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경우 ‘적일까 벗일까, 세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본 귀납적 탐구 방법 연구” 등을, 인문사회에서는 ‘같은 듯 다른 한·중·일 언어 탐구’, ‘벼락 오바마 연설문을 통해 배우는 설득적 글쓰기 실재’, ‘밥 딜런의 노래 가사에 나타난 문학적 탐구’ 등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협력 수업 등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양궁을 통해 배우는 불안과 스트레스 조절’, ‘15초의 예술, 광고로 만들어보기’ 등 예체능 분야 강좌도 개설된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공모를 받아 8개 참여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 광주교대,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대, 남부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학별로 2~5개씩, 모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100분(50분간 2차례), 8주 동안 진행된다. 대학이 인증한 박사급 이상 강사가 참여하며 수강료는 없다. 교육청은 30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학생들은 평일 정규수업(7교시), 보충수업(8·9교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오후 7시~9시)에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장 승인과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당 30명 이내에서 선정하고 학생들은 강좌당 70% 이상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별도 평가는 없고 해당 강좌 이수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수시 모집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대입 전형의 변화에 맞춰 교육 정책 개편도 시급하다”면서 “광주 고교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통해 배우는 설득적 글쓰기 실재’, ‘밥 딜런의 노래 가사에 나타난 문학적 탐구’ 등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협력 수업 등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양궁을 통해 배우는 불안과 스트레스 조절’, ‘15초의 예술, 광고로 만들어보기’ 등 예체능 분야 강좌도 개설된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공모를 받아 8개 참여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 광주교대,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대, 남부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학별로 2~5개씩, 모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100분(50분간 2차례), 8주 동안 진행된다. 대학이 인증한 박사급 이상 강사가 참여하며 수강료는 없다. 교육청은 30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학생들은 평일 정규수업(7교시), 보충수업(8·9교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오후 7시~9시)에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장 승인과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당 30명 이내에서 선정하고 학생들은 강좌당 70% 이상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별도 평가는 없고 해당 강좌 이수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수시 모집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대입 전형의 변화에 맞춰 교육 정책 개편도 시급하다”면서 “광주 고교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가 지난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했던 진로진학박람회. 고교생들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대 제공>

명 이내에서 선정하고 학생들은 강좌당 70% 이상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별도 평가는 없고 해당 강좌 이수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수시 모집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대입 전형의 변화에 맞춰 교육 정책 개편도 시급하다”면서 “광주 고교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로 대입 전형의 변화에 맞춰 교육 정책 개편도 시급하다”면서 “광주 고교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청, 157곳 진로 프로그램 안내서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또 ‘일반고 진로·진학 교육 혁신’ 방안에 따른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공해 활용토록 하

고 있다.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제공한 ‘일반고 맞춤형 진로·진학·직업체험 프로그램 안내서’에는 광주 5개 자치구에 있는 공공기

관, 민간기업, 개인사업장, 청소년·시민단체 등 157개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구체적 체험프로그램 내용뿐 아니라 이수 시간, 운영 기간, 체험료, 교통편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

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신지식인협회 등과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도 청소년 강좌 25가지를 마련, 운영하는 등 교육청 10개 산하 기관에서도 23개 상시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대, 지역 전략산업 창업 집중 지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선정

광주대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광주대가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갖춘 창업 투자·육성 기관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최근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 들어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학측 분석이다.

광주대는 선도대학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청년·기술 창업기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대학의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대를 비롯, 전국 8개 대학을 신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

기술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석·박사, 교수, 연구원 등 3년 미만의 초기 우수창업자를 발굴, 창업 교육, 사업화, 후속지원 등 창업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중기청은 올해 신청한 총 30개 대학의 인프라, 투자역량, 창업 사업화·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광주대 등 8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광주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광산업(광음복합, 신에너지), 스마트 전자산업(에어가전, 생활로봇 등) 분야 기술 창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학교 측은 총장 직속으로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예비 창업자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보니...

고소득층 33%인 88명...기초수급자 12명

올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26.1%가 경제적으로 소득 10분위로 조사됐다.

소득 10분위는 소득 구간을 10등분했을 때 최상위 구간으로, 10분위 가구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합쳐 월 1295만원 초과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약 월 134만원 이하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남대를 비롯, 올해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의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4188명 중 1560명(37.2%)이 소득 10분위로 조사됐다.

전남대의 경우 신청자 264명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9·10분위(소득 상위

20%)가 88명으로 33.3%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5%, 저소득층인 1·2분위 학생은 각각 43명(16.3%), 36명(13.6%)였다.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상당수가 소득 수준이 높거나 등록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경제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감안하면 실제 고소득 학생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전국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1학기 등록금×2)은 1420만원,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6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로스쿨의 올해 1학기 등록금은 51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2017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표

(단위: 분위·명, 자료: 한국장학재단)

기초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2	43	36	11	19	10	14	7	24	19	69	264

교육단신

조선대에 수유실 생겼어요

조선대는 최근 국제관 1층에 모유저장팩, 젓병소독기, 멀티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춘 보육편의실(41.62㎡)을 조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까지 장학금 수기 공모전

한국장학재단은 ‘제 9회 한국장학재

단 장학금·학자금·멘토링 수기·UCC 공모전’을 연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7일 발표한다.

전남대 여학생캠퍼스 다독상 시상

전남대 여학생캠퍼스 도서관은 5월 31일까지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다 대출자 등을 뽑아 시상하기로 했다.

